

# ‘소통’·‘화통’·‘형통’ 의회 구현 온 힘

2020년 7월, 힘차게 출발했던 제8대 하반기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2년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화통의회’, 한마음으로 섬기는 ‘형통의회’를 구현하며 시민과 함께 힘 없이 달려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위기극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후반기 주요 성과를 요약해 보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강화,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시정 견제와 발전방향 제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과 한자리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빛을 발했다.

코로나19에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긴급대책반을 가동하여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 예방활동에 매진했다. 또한, 지난해 중 인동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침수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피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전 회의를 볼 수 있게 했고,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참여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했다.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수시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했다.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시정 견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의원들이 정책능력을 발휘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부의 예산운용과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제8대 익산시의회 총 34번의 회기 동안 7대에 비해 시정질문은 28건 증가한 53건(50.9%증), 5분 자유발언은 62건이 증가한 176건

(64.8%증)이며, 특히 5분 자유발언의 경우 8대 하반기 111건으로 전반기 65건에 비해 58.6%가 증가한 바 8대 의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법정책연구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등 6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으로 의원들이 각종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제8대의 의원발의 조례·개정 건수는 206건(후반기 136건)에 달해 7대 76건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과다.

2021년을 의정혁신의 해로 삼아 ‘청렴결의대회’를 통해 청렴 실천을 다짐하고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합쳤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청렴인 인증패를 수여받으며 신뢰받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발 빠른 대응으로 자치분권이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이양됐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익산시와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자치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올해와 내년에 각 6명씩 총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균형 있는 인사관리를 통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역량을 강화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해 지방자치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희망찬 익산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의 현장의정활동



임시의 본회의장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간담회



음식민물통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부패방지 업무협약

유재구 의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이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세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 요인이 가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다 보니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우선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지원과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현장중심 의정활동  
다양한 채널 통한 소통 강화  
전문성 제고 통한  
시정 발전방향 제시  
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Wanju Techno Valley Co., Ltd.

완주를 시작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혁신성장 거점!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완주군 입지 보조금 **분양가 최대 10% 지원!**

전라북도 투자 보조금 **최대 300억 한도 지원!**

완주테크노밸리(주) 063)229-7417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063)290-2411~2

성황리 분양중!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지구

지명도 799호선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지구

포남고속도로